



글로벌 시황 브리핑: 유가 100달러 시대의 귀환과 포트폴리오 로테이션



[DATE]: 2026.09.11



[REPORT TYPE]: FICC & Global Equities Morning Brief



[STATUS]: Executive Summary

지정학 리스크 발화

이란 전황
격화



WTI \$99.96 돌파

매크로 충격 및 인플레이

인플레이션
재점화 우려



미 10년물 국채 금리
4.849% (+5bp) 급등

성장/위험자산 이탈

밸류에이션
압박



미국 반도체/기술주
약세 및
코스피 7천선 공방

방어/대체자산 이동

피난처 탐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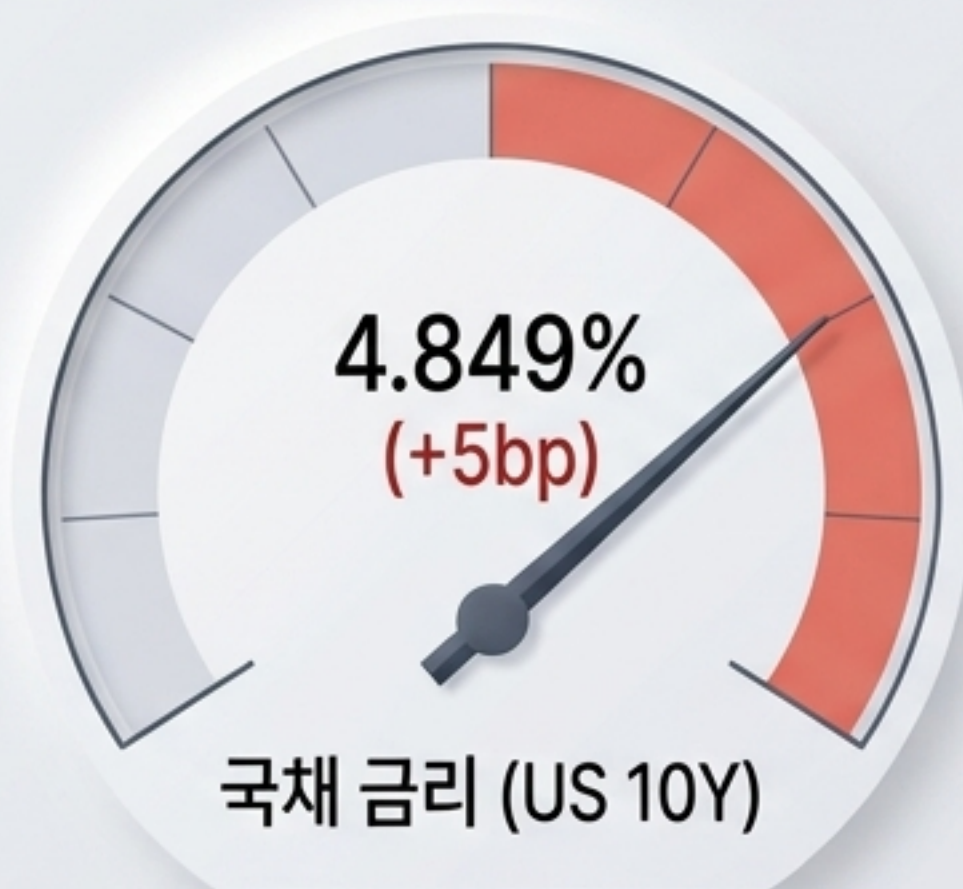
금 \$500 돌파,
비트코인 10만불 돌파,
유럽 방산주 강세

유가발 인플레이션 공포가 기술주 밸류에이션을 압박하며
방어·대체 자산으로의 거대한 자금 이동을 촉발하고 있습니다.

FICC 대시보드: 유가, 금리, 환율의 삼각파도



OPEC 감산 연장 기대
+ 이란 리스크 격화로
100달러 목전



FOMC 매파 기조 및
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반영



ECB 금리 경로
재평가(EUR/USD 1.1790)에 따른
달러 약세(인덱스 0.5, -0.32) 연동

대체 자산의 질주: 실물 안전자산과 디지털 헤지 수요의 결합

Gold

\$500 (+\$18)



안전자산 선호 심리 지속. 단, 중앙은행의 추가 긴축
긴축 우려가 상단 캡(Cap)으로 작용 중.

Bitcoin

\$103,000 (+\$1,240)



거시적 압박을 이겨내는 독자적 랠리.
현물 ETF 순유입 지속이 가격 하방을 견고하게 지지.

폭풍 전야의 미국 증시: 짙은 관망세 속 기술주 밸류에이션 조정

7,636.36 (0.00%)

S&P 500

인플레이션 데이터(PPI/CPI) 발표
대기하며 완벽한 보험세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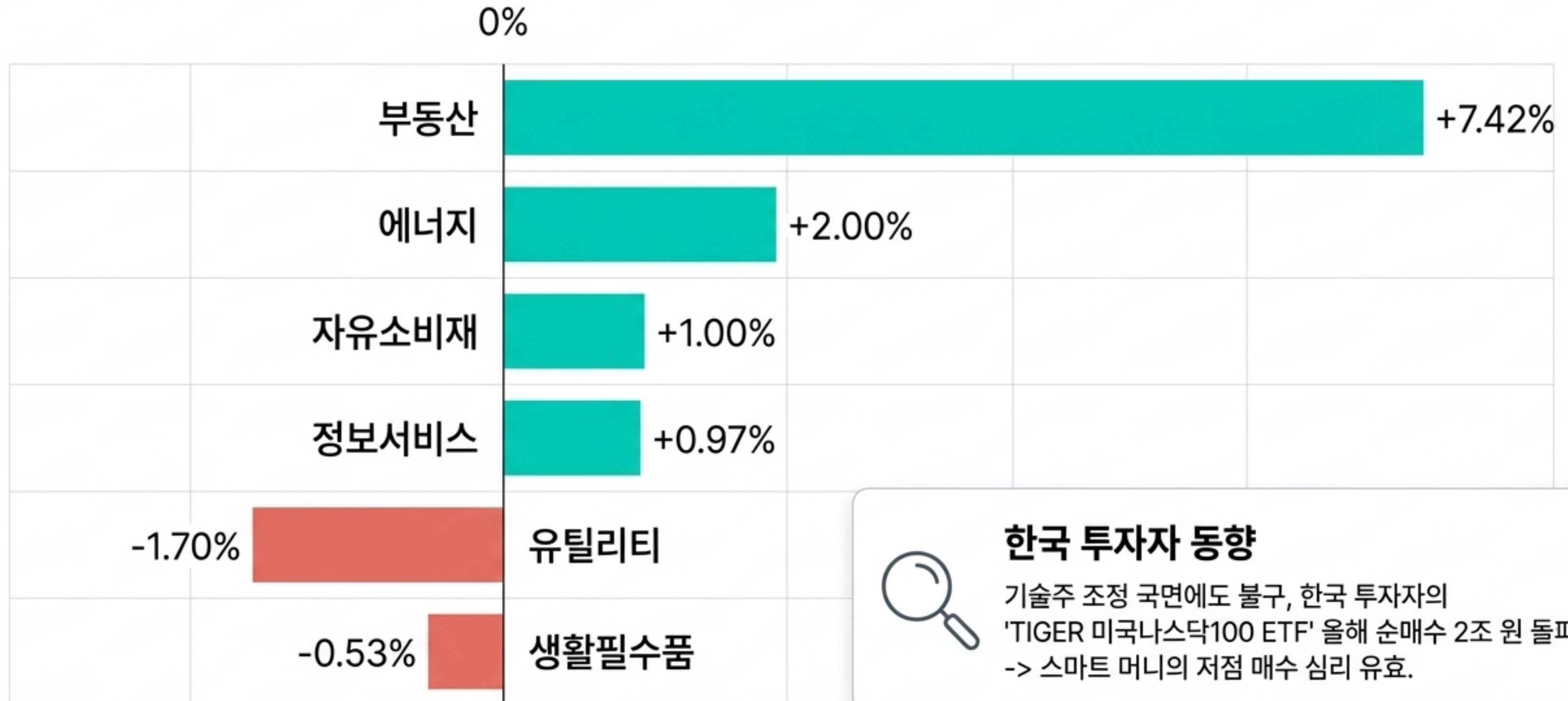
유가 100달러 및 금리 급등이
엔비디아 등 반도체 중심의 매도세 촉발

나스닥

-0.47% ~ -0.82% 하락 마감

단기 지수 방향성은 연준(Fed)의 금리 정책 기대를 좌우할 물가 데이터 확인 후 결정될 전망.

미국 산업별 로테이션: 인플레이션 헤지 섹터의 부상



한국 투자자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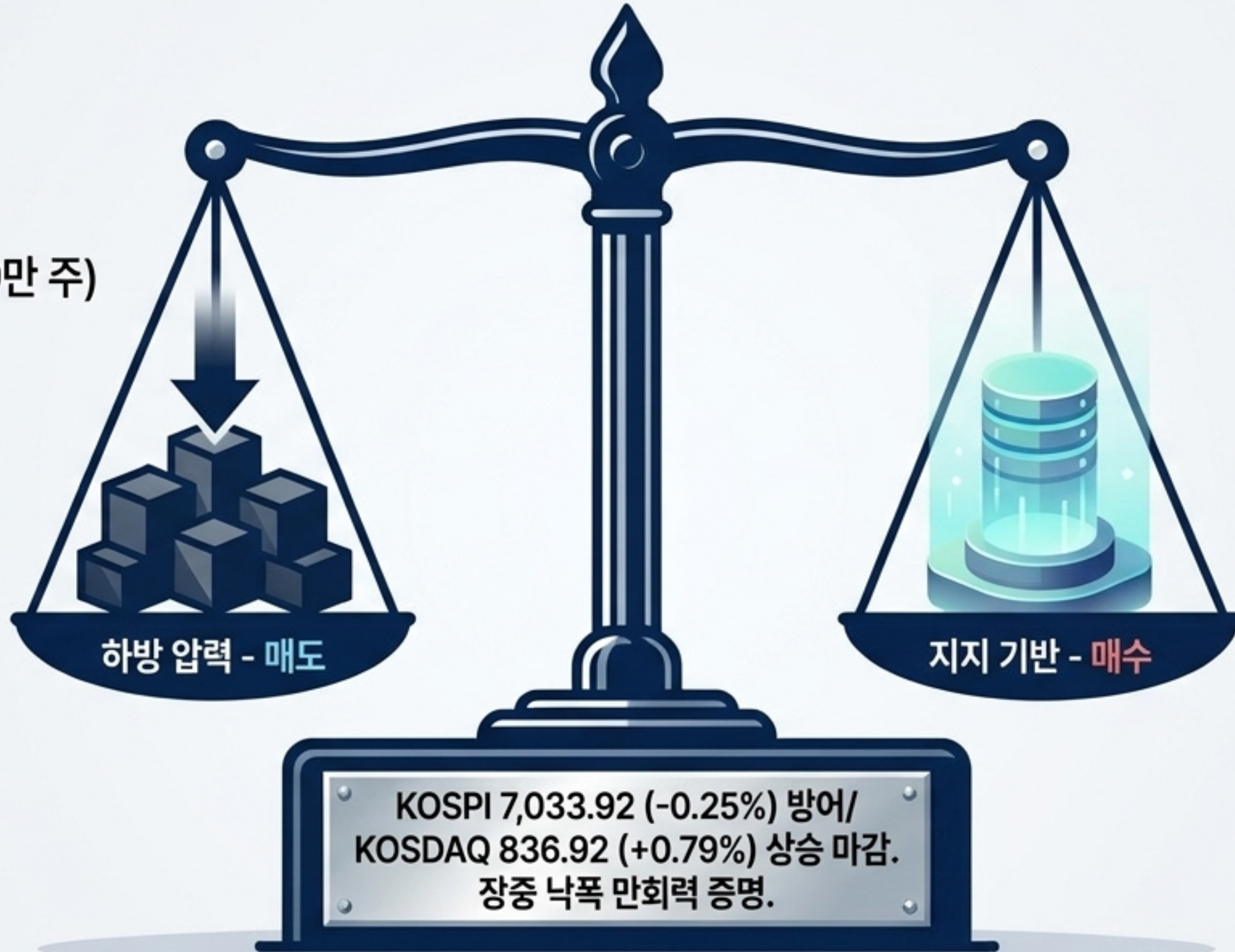
기술주 조정 국면에도 불구하고, 한국 투자자의 'TIGER 미국나스닥100 ETF' 올해 순매수 2조 원 돌파 -> 스마트 머니의 저점 매수 심리 유효.

코스피 7000선 방어전: 외국인 매도 폭탄 vs 대기자금의 흡수

외국인 2.5조 원(576.9만 주)
순매도

한 달간 프로그램 매매
16조 원 매도 폭탄 누적

미 기술주 하락 연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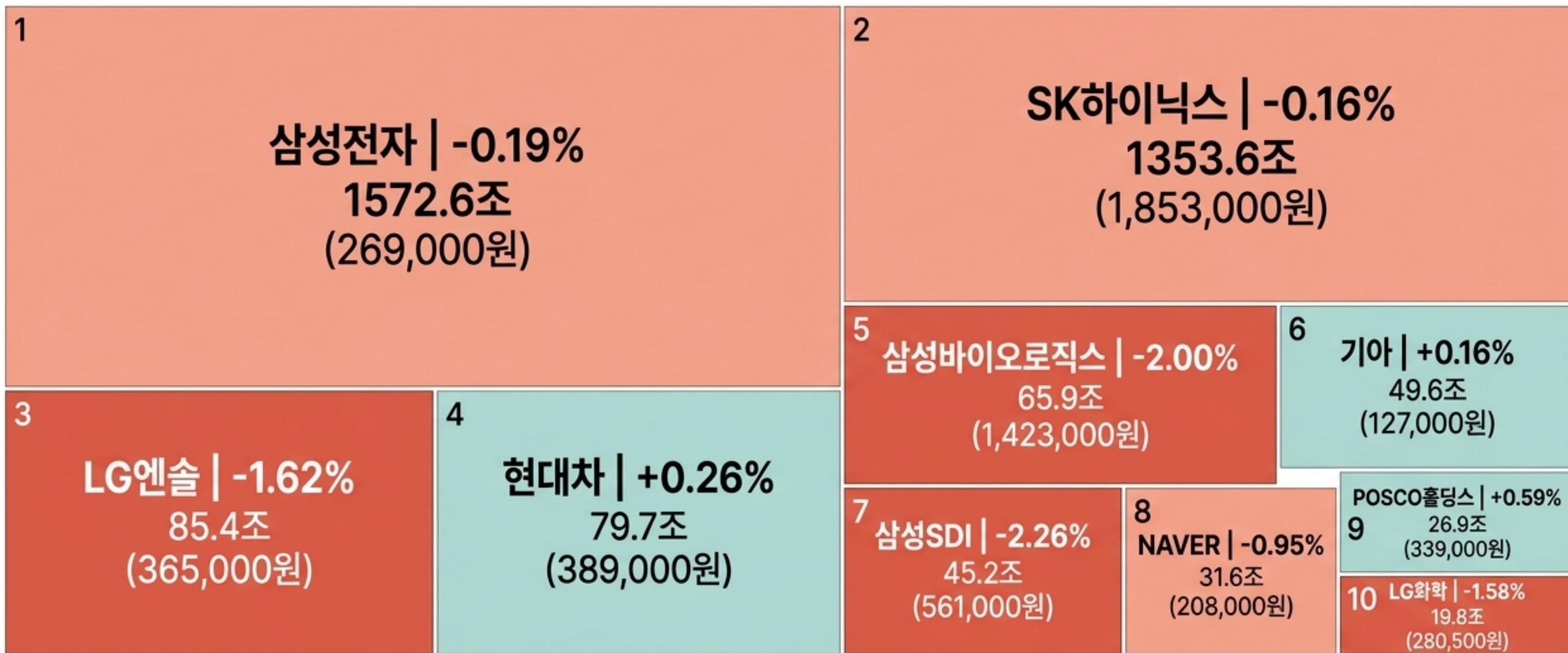


증시 대기자금
100조 원 회복

기관 순매수(코스닥
426.7만 주 흡수 포함)

개인 물량 방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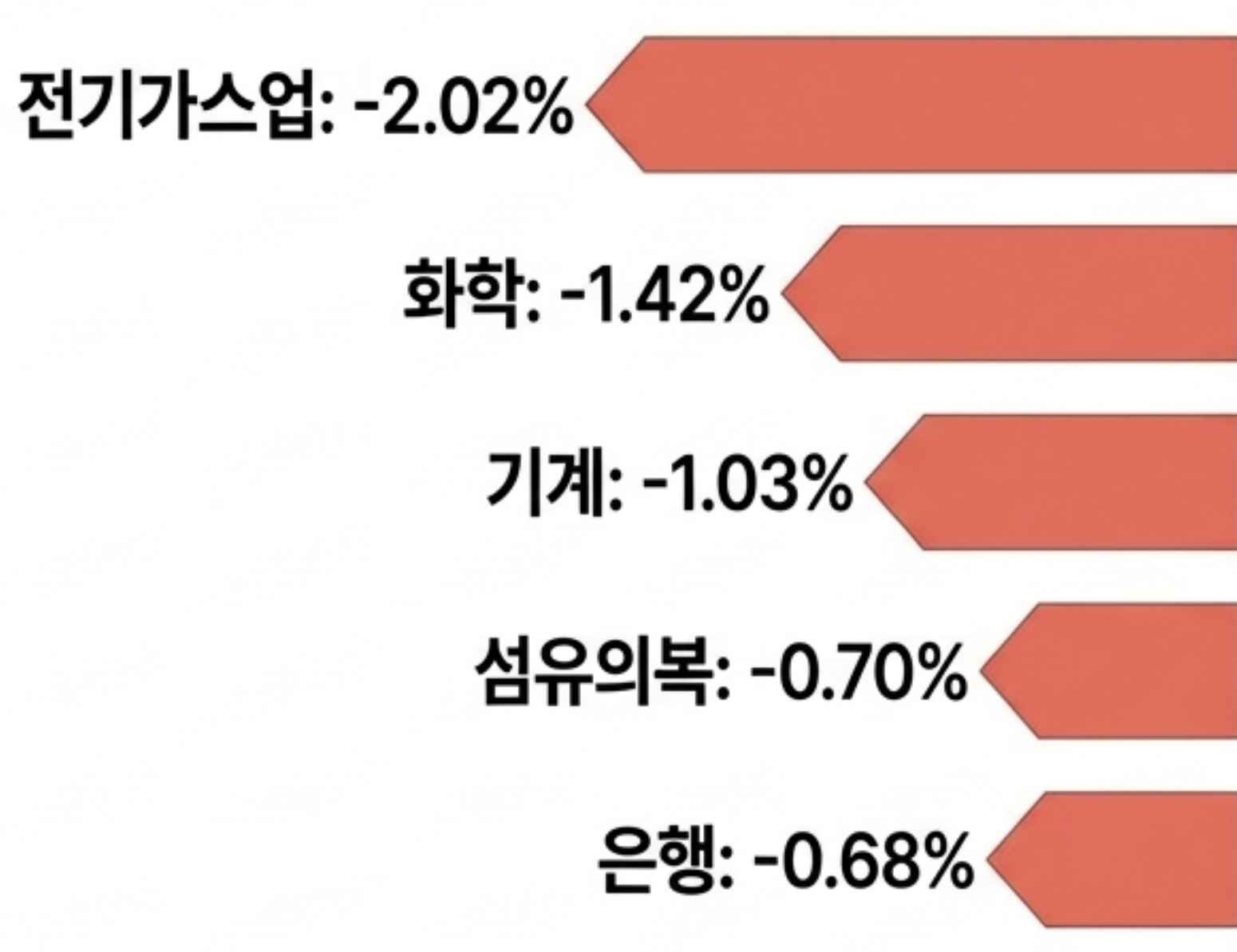
코스피 시총 Top 10 기상도: 주도주의 숨 고르기와 가치주의 방어



반도체 및 2차전지(LG엔솔, 삼성SDI) 약세 뚜렷. 현대차, 기아, POSCO홀딩스의 상대적 선방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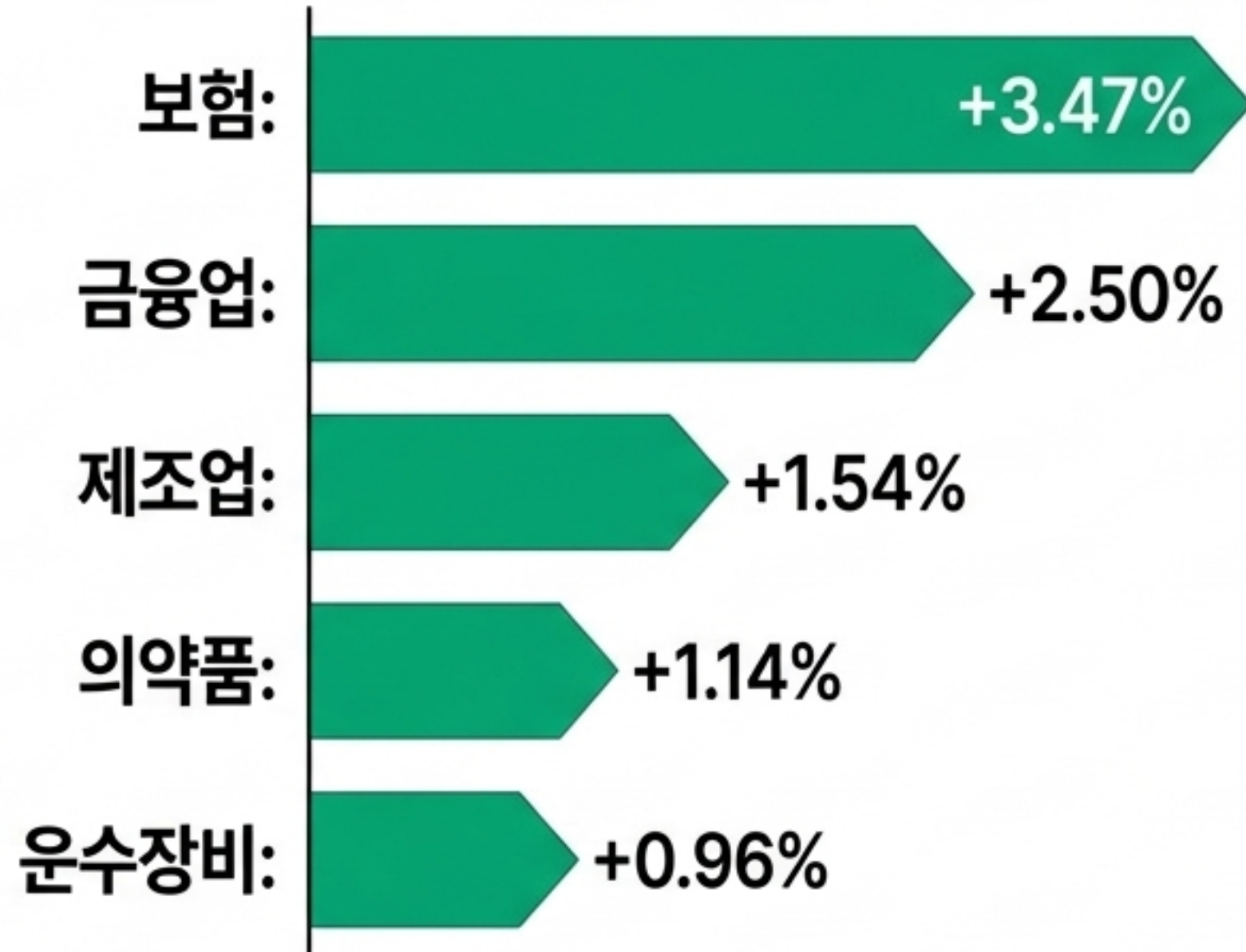
국내 섹터별 명암: 금리 상승 환경에 반응하는 포트폴리오

하락 주도 (원가 부담 및 밸류에이션 압박)



유가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 우려

상승 주도 (방어 및 가치주 매력 부각)



금리 환경에 유리한 방어주 및 가치주 중심의 강세

글로벌 마켓 맵: 거시적 충격 속 각자도생의 디커플링

유럽 (Europe)

DAX 24,998.00 (+0.80%) / FTSE 100 (+0.79%)

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및 안보
수요시에 따른 방산주 강세 주도.

일본 (Japan)

Nikkei 225 56,734.00 (+0.46%)
단기 엔화 약세 전환으로 수출주 수혜.

중국 (Greater China)

Shanghai 3,215.00 (+0.45%) /
Hang Seng 22,944.00 (+1.59%)
본토 증시 정상 거래 재개 속 반등 성공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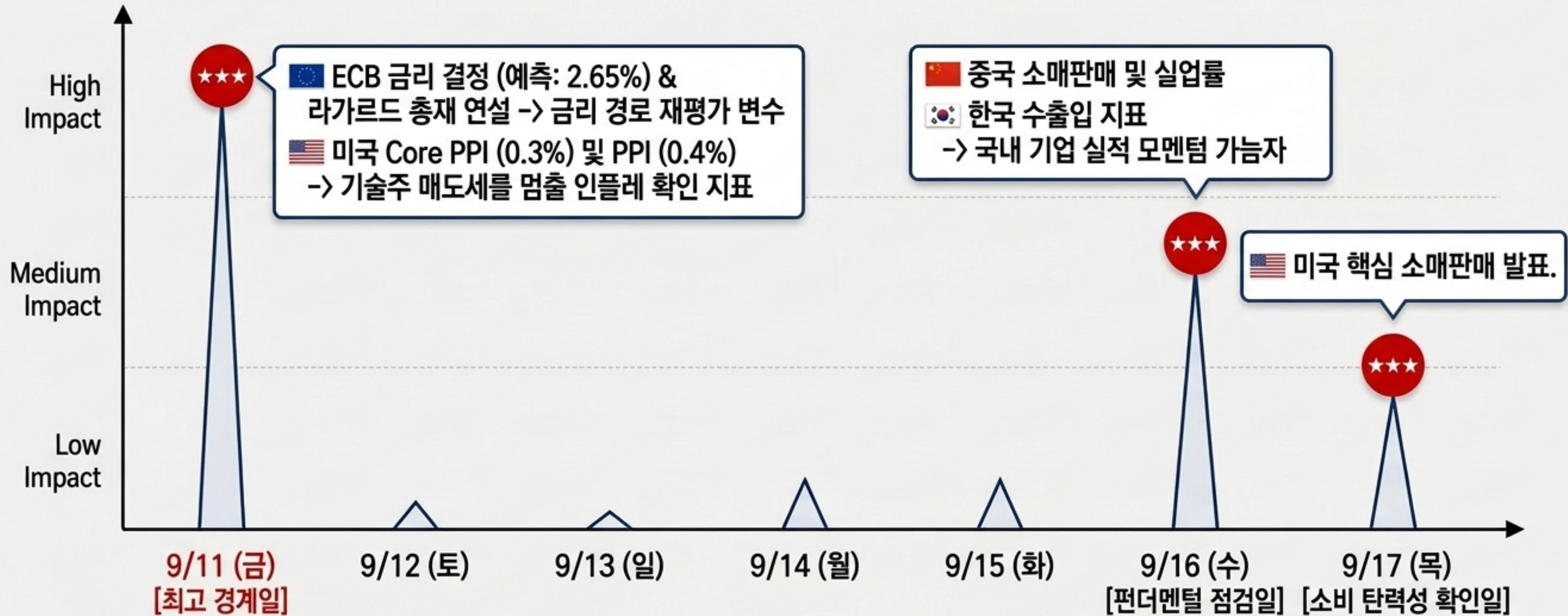
유가 급등과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 대기 속에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인 차익 실현과
자원주(호주 ASX 200 +0.52%) 중심의 국지적 상승이 혼재.

크로스 마켓 진단 매트릭스: 성장(Growth)에서 가치(Value)/안보(Security)로

Domestic Sector (국내) <---> Global Asset (글로벌)	
Macro Tailwinds (상승 동력) <---> Macro Headwinds (압박 요인)	압박 요인 - 외국인 현선물 대규모 매도, 전력/원자재 비용 증가. - 피해 자산: 2차전지, 전기가스, IT 대형주 전반.
	압박 요인 - WTI \$100 육박, 미 10년물 4.8%대 진입. - 피해 자산: 미국 반도체/AI 밸류에이션, 기술주 중심의 성장 자산.
	상승 동력 - 대기자금 100조원의 저가 매수, 금리 환경 적응력. - 수혜 자산: 보험/금융(가치 방어주), 운수장비(환율 효과).
상승 동력	

매크로 헤드윈드(고유가/고금리)가
성장주 랠리의 발목을 잡는 사이,
자본은 명확한 '현금흐름(가치)'과
'지정학적 피난처(안보/대체)'로
대거 이동 중.

매크로 카탈리스트 레이더: 단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인플레이션 위크



금요일 밤(9/11) 발표될 ECB의 통화정책 스탠스와 미국의 도매 물가(PPI) 결과가 다음 주 글로벌 투심을 좌우할 최대 분수령.

Executive Summary & Actionable Insights



에너지/물가 모니터링

유가 100달러 안착 여부
최우선 관찰.

이란 리스크발 WTI 급등이 미
10년물 금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.

단기적으로 에너지 물가 상승세
진정 여부가 기술주 밸류에이션
정상화의 전제 조건입니다.



수급 방어선 체크

코스피 7,000선 지지력과
대기자금.

외국인의 2.5조원 매도 폭탄에도
지수를 방어했습니다.

100조 원 규모로 회복된 증시
대기자금이 기관과 함께 하방을
견고히 다지는지
수급 추적을 요망합니다.



포트폴리오 리밸런싱

가치주 및 안전자산
분산 비중 확대.

통화정책(ECB, Fed) 불확실성
구간을 통과하기 전까지, 변동성에
취약한 IT/배터리 비중을 조절하고
금융/보험 등 가치주와
금/비트코인 등 대체자산으로의
분산을 고려할 시점입니다.